

KIA 고졸신인 이의리, 시범경기 '눈길'

첫등판서 5이닝 무실점 쾌투...삼진 7개
배짱있는 투구로 5선발 경쟁도 뜨거워져

고졸 신인 이의리(19·KIA 타이거즈)가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의리는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2021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안타와 볼넷 2개씩을 내줬지만 삼진 7개를 빼앗겼다. 출발은 흔들렸다. 이의리는 1회초 첫 타자 나승엽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냈다. 손아섭과 정훈을 각각 뜬공,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이대호에 우월 2루타를 맞았다. 이어 안치홍에게 볼 4개를 연거푸 던져 2사 만루에 몰렸다. 위기에 놓인 이의리는 한동희에 3루수 땅볼을 유도, 실점 없이 1회를 정리

했다. 2회에는 선두 신용수를 땅볼, 지시완을 삼진으로 잡아냈다. 덕슨 마차도에게 좌익수 방면 2루타를 허용한 뒤 나승엽을 우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3회부터 본격적인 쾌투가 시작됐다. 손아섭-정훈-이대호로 이어지는 타선을 삼자범퇴로 끝낸 그는 4회를 공 9개로 마무리했다. 5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롯데 타선을 잠재웠다. 5이닝 동안 72개의 공을 던진 이의리는 6회초 김현준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의리는 2021년 신인드래프트에서 KIA의 1차 지명을 받은 좌완 유망주다. 키움 히어로즈 정재영, 롯데



2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1회초 무사에서 KIA 선발투수 이의리가 역투하고 있다.

김진욱과 함께 특급 신인 투수로 평가 받는다. 연습경기부터 두각을 드러낸 이의리는 이날 첫 시범경기 등판에서

도 배짱있는 투구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의리가 호투하며 KIA의 5선발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뉴스**

윌리엄스 감독, ERA 7.27 무명투수 마무리 후보 거론



"와일드카드도 있는데...".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이 개막을 앞두고 마무리 낙점의 기준을 밝히며 무명의 투수도 깜짝 거론했다. 25일 롯데와의 광주 시범경기

앞서 세 명의 투수들을 마무리 후보로 거론했다. 사이드암 박준표(29), 우완 2년차 정해영(20), 그리고 우완 김재열(25)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박준표는 가장 경험이 많다. 정해영은 작년 한 번이

김재열, 2014년 롯데 입단 1군 데뷔 못하고 2017년 아웃군복무·사회인 야구단 거쳐 작년 5월 KIA행 '독특 이력'

었지만 후반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 현재 답을 준다면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박준표는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동시에 "또 한명의 와일드카드도 있는데 김재열이다"라고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은 "김재열은 직구의 커맨드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 충분히 (뒤에서) 활용할 수 있다. 직구의 커맨드가 좋다면 다른 변화구도 잘 던질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재열은 무명의 우완투수이다.

부산고 출신으로 2014년 롯데에 입단했으나 1군 데뷔 없이 2017년 옷을 벗었다. 군복무와 사회인 야구팀을 거쳐 작년 5월 KIA에 입단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퓨처스리그에서 140km대 중반의 공을 던지면서 제구력도 보여주자 작년 9월 1군 풀업을 받았다. 1군에 데뷔해 14경기에서 볼펜투수로 17 1/3이닝을 던졌다. 1패2홀드 평균자책점 7.27이 전부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런 일천한 경력을 갖춘 김재열을 언급했다.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한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중요한 장면에서 활용하겠다는 의지였다. 김재열이 겨우내 몸을 잘 만들었고 스프링캠프와 연습경기에서 계속 좋은 볼을 던지자 눈여겨보았다. 연습경기 3경기에서 4 1/3이닝 1차책점, ERA 0.82를 기록했다. 시범경기에서는 1이닝 1볼넷 무피안타 무실점을 기록 중이다.



24일 오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도드람 V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IBK기업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를 거둬 챔피언결정전 진출이 결정된 흥국생명 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연경 "흥국생명, 챔피언전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돼"

V리그 여자 PO 3차전 기업은행에 완승...12년만에 챔피언결정전

김연경(33·흥국생명)이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 에이스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흥국생명은 24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기업은행과의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3전 2선승제) 3차전에서 3-0(25-12 25-14 25-18)으로 완승을 거뒀다. 김연경을 앞세워 플레이오프 1차전을 이긴 흥국생명은 2차전에서 기업은행 라자레바, 표승주 등을 막지 못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3차전에서 심기일전한 흥국생명은 김연경(23점)과 브루나(14점)를 앞세워 승리해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선수들이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했다. 전력분석원들도 분석을 너무 잘해줘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게 잘 맞아 떨어졌다. 어제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서 다같이 잘해보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생각도 동기부여가 됐다. 김연경은 "오늘 지면 더이상 경기가 없으니까 마무리하는 경기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니 잘됐다. 즐기면서 재밌게 경기를 치른 거 같다. 기본 좋게 잘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연경은 무려 60%에 육박하는 공격성공률을 자랑했다. 흥국생명은 챔피언결정전(5전 3선승제) 무대에 올라 정규리그 1위 GS칼텍스에 대결한다. 김연경은 "트레이너가 손가락에 테이핑을 잘해줘서 괜찮았다. 모든 선수들이 갖고 있는 통증 정도다. 진통제는 먹었다"고 부상 정도를 설명했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 팀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챔피언결정전에 올라와서 감동적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에게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12년 만에 챔피언결정전을 경험하는 김연경은 "끝까지 가겠다"는 팀의 슬로건을 밝혔다.

브루나의 경기력에 대해서 "브루나는 오늘 경기 전부터 의지가 남달랐다. 카드를 받더라도 라자레바와 싸우겠다고 하더라. '싸우지 말고 배구로 보여달라'고 했다. 카드를 받아도 될 정도로 역전을 보인다고 했는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고맙다.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그러나 챔피언결정전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못했다고 걱정했다. 김연경은 "기업은행에 신경을 쓰다 보니 GS칼텍스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못해서 걱정이다. 시간도 없다. 이를 뒤에 바로 경기다. GS칼텍스는 한 선수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다. 좋은 공격수가 많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마크하는 지가 관건이다. 또한 GS칼텍스는 기동력과 수비도 좋은 팀이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포스트시즌에 들어와서 슬로건을 정했다. 선수들이 '끝까지 간다'로 정했다. GS칼텍스가 오히려 부담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린 도전자 입장에서 할 것이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선수단 미팅을 통해서 결속력을 키웠다. 김연경은 "플레이오프에 들어오면서 매번 미팅을 한 시간을 넘게 했다.

그러나 챔피언결정전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못했다고 걱정했다. 김연경은 "기업은행에 신경을 쓰다 보니 GS칼텍스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못해서 걱정이다. 시간도 없다. 이를 뒤에 바로 경기다. GS칼텍스는 한 선수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다. 좋은 공격수가 많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마크하는 지가 관건이다. 또한 GS칼텍스는 기동력과 수비도 좋은 팀이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2년 전보다 부담감은 덜한 거 같다. 이번 챔피언결정전은 아직까지 부담이 없다. 플레이오프를 좋게 마무리해서 챔피언이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다. 우리 팀이 챔피언결정전에서 얼마만큼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류현진, MLB 투수 랭킹 4위...전체 28위

美 블리처리포트, 50명 공개

올해도 메이저리그(MLB) 토론도 블루제이스 에이스로 뿔 류현진이 새 시즌 시작 전부터 그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블리처리포트는 25일(한국시간) 2021시즌 MLB 선수 랭킹 상위 50명을 공개했다. 류현진은 투수 4위, 전체 28위라는 높은 순위에 랭크됐다. 류현진은 투수 4위, 전체 28위라는 높은 순위에 랭크됐다.



인디언스) 뿐이다. 류현진의 뒤로는 쟁쟁한 선수들이 즐비하다. 트레버 바우어(29위·LA 다저스), 루카스 지올리토(30위·시카고 화이트삭스), 다르빗슈 유(32위·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클레이튼 커쇼(40위·LA 다저스) 등이 류현진보다 아래에 배치됐다. 류현진은 전날 ESPN의 선수 랭킹에서도 지난해보다 44계단 상승한 50위에 자리했다. **뉴스**

양현종, MLB시범경기 첫 선발...3 1/3이닝 2실점 2K

양현종, MLB시범경기 첫 선발...3 1/3이닝 2실점 2K



메이저리그(MLB) 입성을 노리는 텍사스 레인저스 양현종이 시범경기 첫 선발 등판에서 무난한 투구를 선보였다.

2회 집중타로 2점을 내준 것은 아쉬웠다. 양현종은 25일 오전 10시5분(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 굿이어 볼파크

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2021 MLB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3 1/3이닝 5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탈삼진은 2개, 사사구는 없었다.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은 3.00에서 3.89(9 1/3이닝 4실점)로 소폭 상승했다. 호세 트레비노와 배터리 호흡을 맞춘 양현종은 1회말 첫 수비를 무실점으로 넘겼다. 선두타자 디 고든을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양현종은 닉 카스테야노스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다. 클리엄 트리오와의 승부는 좋았다. 마이크 무스타키스에게 3루 땅볼을 유도해 주자를 잡아낸 양현종은 에우헤니오 수아레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1회를 마쳤다. 타선이 터지면서 3점을 등에 업고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2회말 집중

타를 견뎌내지 못했다. 선두타자 터커 반하트를 유격수 땅볼로 제압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후 크게 흔들렸다. 양현종은 타일러 스티븐슨에게 중전 안타를, 타일러 나퀸에게 2루타를 맞고 1사 2루 위기에 몰렸다. 아리스티데스 아귀노의 우전 안타가 나오면서 양현종의 첫 실점이 기록했다. 알렉스 블란디노를 파울업 삼진으로 처리, 아웃 카운트를 늘린 양현종은 디 고든과의 승부에서 1타점짜리 2루타를 허용했다. 1루 주자 아귀노가 홈에서 아웃되면서 세 번째 실점을 막은 것이 다행이었다. 3회는 깔끔했다. 카스테야노스-무스타키스-수아레스로 이어지는 2~4번 타자들을 모두 내야땅볼로 돌려세웠다. 양현종의 등판은 4회 1사까지였다. 2루 땅볼로 끝난 선두타자 반하트와의 승부가 마지막이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외국인 공격수 발로텔리 영입

프로축구 K리그2(2부) 전남 드래곤즈가 25일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 발로텔리(32)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185cm 77kg의 다부진 체격과 투쟁적인 성향인 발로텔리는 몸싸움에 강한 스트라이커다. 빠른 스피드와 개인 기술이 뛰어나 드리블을 활용한 일대일 돌파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

는다. K리그 경험이 있다. 2018시즌을 앞두고 부산 아이파크 유니폼을 입었다. 4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으나 부상으로 중도 하차했다. 발로텔리는 "K리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 부산에서 겪은 한국 선수들은 매우 뛰어났고 하나

의 목표를 가지고 매 경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내 목표는 항상 팀을 위해 최대한 많은 득점과 도움을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것이다"고 했다. 4라운드까지 1승3무(승점 6)로 5위에 자리한 전남은 다음달 4일 대전 하



나시티즌과 5라운드를 펼친다.